

재속 프란치스코회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하느님을 향한 인간 정신의 여정

제 06-08호 2006년 8월 20일 발행

St. Bonaventure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월례회: 매월 셋째 일요일 1:30 PM 반모임: 매월 넷째 일요일 12:30 PM
장소: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드리신 인사

거룩한 부인이요 여왕이시여,
하느님의 성전이 되신 동정녀요,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하늘에 계신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간택하시어,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시며 사랑하시는 아드님과
협조자이신 성령과 함께
당신을 축성하셨나이다.

당신은 온갖 은총과 온갖 선이 가득하셨으며
지금도 가득하시나이다.

천주의 궁정이시여, 기뻐하소서.
천주의 장막이시여, 기뻐하소서.
천주의 집이시여, 기뻐하소서.

천주의 의복이시여, 기뻐하소서.
천주의 여종이시여, 기뻐하소서.
천주의 어머니이시여, 기뻐하소서.

그리고 거룩한 모든 덕행들이여,
당신들도 기뻐하소서.
성령께서 당신의 은총과 비추심으로
당신들을 믿는 이의 마음에 부어 주시어
당신들로 인해 불충한 이가 하느님께 충실한 자
되게 하리이다.

- 성 프란치스코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은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 생활을 마치고 영혼과 육신이 하늘 나라로 들어 올려졌음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축일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4세기 중엽에 ‘복되신 동정녀 기념일’이 마리아의 죽음과 승천 축일로 받아들여진 듯하며, 서방 교회에는 7세기경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황 비오 12세는 1950년에 성모 승천을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다. 그 뒤부터 성모 축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축일인 이날을 의무 축일로 지내고 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티없이 깨끗하신 동정녀이시며 성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육신을 그 영혼과 함께 천상 영광에 불러들이셨으니, 저희도 언제나 주님을 그리워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 프란치스코의 축복

오!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들,
그리고 영원히 축복받은 아들들,
내 말을 듣고 여러분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큰 것을 약속했고,
우리에게는 더 큰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고 약속된 것을 갈망합니다.
쾌락은 일시적이고 형별은 끝이 없습니다.
고통은 짧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 2첼리노 191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



‘클라라’란 이름이 지닌 의미는 ‘찬란한 빛’입니다. 클라라 성녀는 한 평생 자신의 이름처럼 찬란하게, 그리고 영롱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언젠가 성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도시 아씨시를 들렀을 때의 좋았던 느낌이 아직도 손에 잡힐 듯 생생합니다.

클라라 성녀께서 수십년간 사셨고, 또 임종했던 다미아노 성당에 들렀을 때, 그 가난하고 소박한 분위기가 떠오릅니다. 그 좁디좁은 공간에서, 처참할 정도의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도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얼굴로 자매들과 함께 찬미가를 불렀던 클라라 성녀의 삶은 더 이상 영웅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찬란할 수가 없었습니다. 클라라 성녀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신앙의 모범은 얼마나 탁월한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가 있고 다양한지, 부족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추종이 불가능해보입니다.

겸손 - 다미아노 성당에서 수도생활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 당시 아씨시의 교구장이셨던 귀도 주교님께서는 극구 사양하는 클라라를 대수녀원장에 임명하였습니다. 클라라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 직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수녀원장인 클라라였지만 수녀원의 굳은 일은 자신이 다 맡아했습니다. 수녀원의 허드렛일은 당연히 자신의 일이라니 생각하고 콧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해치웠습니다. 클라라가 유독 좋아하는 일이 있었는데, 수하 수녀들이 식사할 때 ‘써빙’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일을 끝내고 흙 먼지투성이의 발로 들어오는 동료 수녀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발을 다 씻긴 클라라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재빨리 수녀님들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랑 - 클라라가 동료 수녀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은 보통 각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풍이 몰아치는 겨울이 올 때마다 황소바람은 수녀원의 허술한 문이나 창문 틈을 뚫고 수녀들을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새우처럼 웅크리고 잠든 수녀들의 추위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그 긴 겨울밤을 꼬박 지새우곤 했습니다.

또한 수녀들의 부족함에 눈에 띄면 그 어떤 어진 어머니보다도 더 다정한 사랑으로 권고하였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가난 - 아무것도 깔지 않은 맨바닥이 오랜 세월 클라라의 잠자리였습니다. 냇가에서 주워온 돌이 베개였습니다. 작디작은 빵 한조각과 물 한잔이 매끼니 식사였습니다. 실내장식이나 난방은 고사하고 아무런 설비도 안 갖춰진 누추한 거처에서 한 평생을 살았습니다. 클라라는 가난이 무엇인지, 추위에 떠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 피로에 지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클라라는 그 모두를 더할 나위없는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하느님 섭리에 대한 확신 - 스승 프란치스코의 영성에 따라 클라라의 가난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 고집은 교황님도 막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클라라와 수녀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던 당시 교황님은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약간의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러나 클라라는 끝끝내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클라라가 한 평생, 혼신을 다했던 투쟁 가운데 하나가 물질과의 투쟁이었습니다. 최소한 다음날 먹을 양식만이라도 확보해 놓으면, 수도공동체는 먹는 것으로부터 걱정을 덜게 되고, 그만큼 더 열심히 관상생활에 투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사람들의 의견과 맞서 클라라는 한평생 싸웠습니다. 절대로 내일을 생각하지 않게 했습니다.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

성녀 클라라 축일 8월 11일

클라라에게 있어 내일에 대한 보장은 오직 하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클라라는 언제나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주님의 말씀만 되풀이 해주었습니다.

클라라는 ‘거룩한 가난’과 얼마나 깊이 관계를 맺고 사랑했던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유를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딸들에게도 무엇하나 가지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자신의 딸들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께만 마음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씨시의 빈자 성 프란치스코의 가장 뛰어난 제자요, 첫 여성제자로 프란치스코 성인으로부터 가장 극진한 사랑을 받은 영적인 딸 클라라는 프란치스코가 탄생한 후 12년 뒤인 1193년에 출생했다가 125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 보나벤투라는 클라라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녀는 프란치스코의 정원에 핀 첫 꽃송이로서 마치 빛나는 별처럼 반짝였으며, 희고도 순수한 봄꽃과도 같이 향기로웠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 프란치스코의 딸이었으며 가난한 클라라회의 창설자였습니다.” ■

- 양승국신부



축하합니다

종신서약: 김미경 마리아

유기서약: 김영자 켈마

강수연 마리아

박용순 세실리아

남효선 엘리사벳

입회: 곽종무 토마스 아퀴나스

이계숙 가브리엘라

남석현 야고버

미움의 안경과 사랑의 안경

미움의 안경을 쓰고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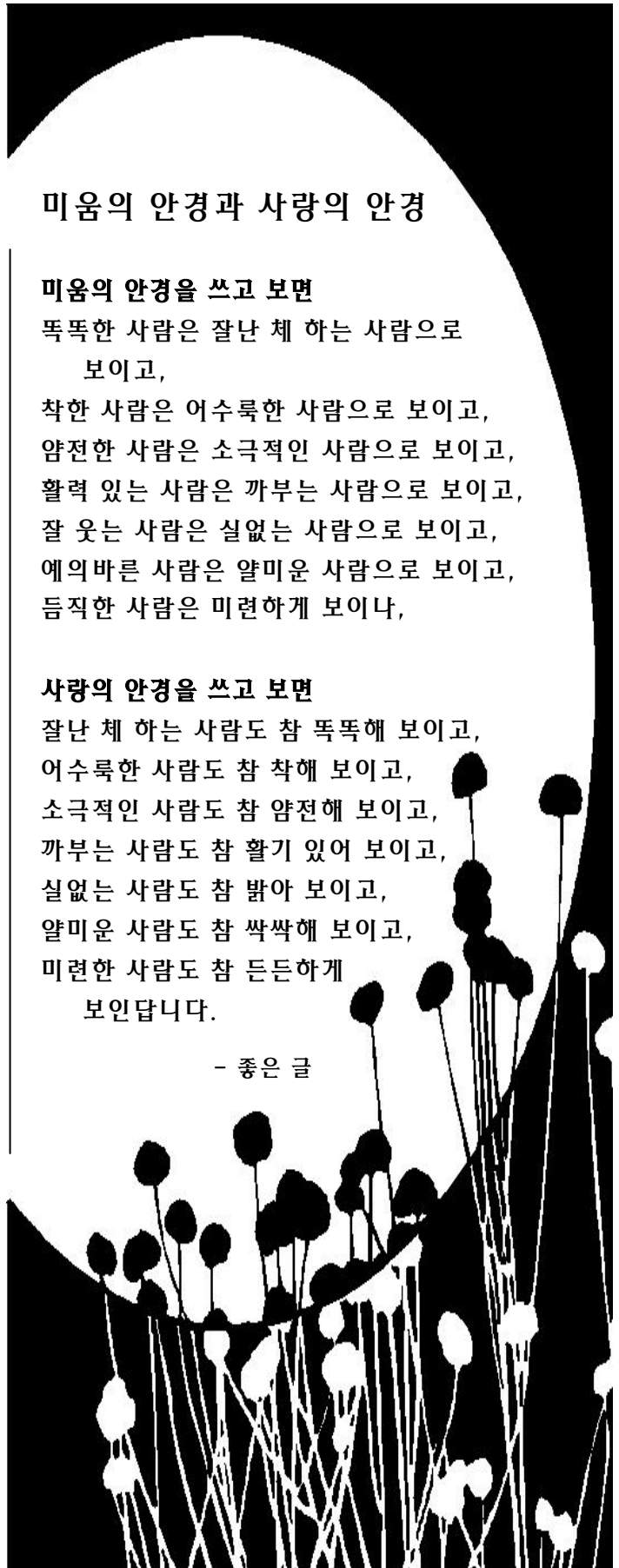
똑똑한 사람은 잘난 체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착한 사람은 어수룩한 사람으로 보이고,
얌전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활력 있는 사람은 까부는 사람으로 보이고,
잘 웃는 사람은 실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예의바른 사람은 얄미운 사람으로 보이고,
듬직한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나,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참 똑똑해 보이고,
어수룩한 사람도 참 착해 보이고,
소극적인 사람도 참 얌전해 보이고,
까부는 사람도 참 활기 있어 보이고,
실없는 사람도 참 밝아 보이고,
얄미운 사람도 참 싹싹해 보이고,
미련한 사람도 참 든든하게
보인답니다.

- 좋은 글



보나벤투라 형제회 소식난

✦ 7월16일 St. Francis성당에서 한국에서 방문차 오신 이종환 요한 신부님과 함께 안티모 신부님의 주례미사로 입회3명, 유기4명, 서약1명과 3 형제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한 자리에 주님의 은총으로 서약식을 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 서약식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형제자매들께 감사드립니다.

✦ 서약식이 끝나고 남아고보 형제덕에서 각테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나벤투라 형제회에 새로 지원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10월 6-8일(금-토)필라델피아형제회에서 주관하는 피정에 참석하실 분은 조마리아 (703-250-1658)자매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7월30일 평의회를 하고난 후 양성 워크샵이 안티모 신부님을 모시고 한테레사 자매덕에서 있었습니다. 2006-2007 양성교사 명단:

지원반: 강요한, 한테레사

입회반: 지요한, 이아모스

유기서약: 강말가리다, 광로사

영속적 양성반: 이말가리다, 조로사

✦ 지난 2년 동안 지원반 양성을 담당하던 최클라라 자매가 시간 사정상 그만 두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티모 신부님과 월례회 때 면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시간 약속을 별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7월 18일 클라라 형제회의 부회장 이동철 형제덕에서 한국에서 오신 이종환 신부님과 친교의 밤에 한테레사, 조마리아, 강요한, 강스텔라 자매 형제가 다녀왔습니다.

기도 중 기억합시다 ...

✦ 우리 형제회에 새로 지원하신 분들을 위해 ...

✦ 보나벤투라 형제회의 설립을 위해 ...

✦ 세계의 평화를 위해 ...

✦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8월 월례회 시간표

1:00 PM - 다과

1:30 PM - 월례회

2:00 PM - 양성 교육

3:40 PM - 신부님 강론

4:30 PM - 미사 / 공지사항

✦ 미사성가: 지침서 ✦

입당: 6번 우리는 형제로

봉헌: 32번 평화를 주옵소서

성체: 42번 천사의 양식

마침: 65번 천상의 어머니

본명축일을 축하합니다

8월 11일: 김준호 클라라

최경분 클라라

8월 12일: 윤태순 요안나

8월 15일: 송정임 마리아

김운옥 마리아

김미경 마리아

강수연 마리아

9월 간식담당

강말가리다, 강요한, 강스텔라



제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속 프란치스코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회장: 한기남 703-425-9445 man5ki@yahoo.co.kr

부회장: 이장훈 703-509-1388

서기: 김미경 703-680-0274 talmadge01@msn.com

회계: 조순우 703-759-9429 swcsfo@yahoo.com

양성: 조은자 703-250-1658 chosonyoo@hanmail.net

영적보조: 김태승 안티모 OFM kantimo@hotmail.com